

제30호(2012. 10. 5)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

최 병 옥 승 준 호

1. 농산물 비축사업의 의의	3
2. 농산물 비축사업의 현황과 운영 실태	4
3. 농산물 비축제도의 문제점	7
4. 농산물 비축사업의 개선 방안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이용선 연구위원	02-3299-4320	yslee@krei.re.kr
내용 문의:	최병옥 부연구위원	02-3299-4334	bochoi@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정부는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성출하기에 수매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는 수매비축제도와 수급 상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수입을 통하여 비축을 실시하는 수입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비축 대상 품목은 계절적 수급과 가격변동이 크고 국민 생활에서 가격안정을 요구하는 품목,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증산 유도가 필요한 품목 위주로 선정함.

수매비축은 농수산물이 성출하기일 때 국내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매하여 산지가격 지지 및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UR 농업 협정문에서 규범상 국내 농산물 수매는 가격지지 정책으로 분류되어 점치 감축 및 폐지되고 수입비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양념 채소류인 고추, 마늘은 비축량이 소비량 대비 고추 3.0%, 마늘 3.3%에 불과함. 정부가 국내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매 및 비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협, 영농조합 법인 등과 같은 생산자 단체가 정부의 수급안정 자금을 활용하여 계약재배, 자율적인 비축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농협의 노지채소류 계약재배 비율이 20~30%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계약재배가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비축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음. 수입비축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이 중국 등의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변화 등으로 해당 국가의 수급이 불안정 할 경우 수입비축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농식품 관련 민간 유통업체나 가공식품업체는 관세가 낮은 TRQ 물량의 취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의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농산물 수매비축 사업은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노지채소류 위주로 실시되어야 함. 생산자 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수매비축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 없이 시장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고 산지유통인 중심의 전근대적인 거래방식을 개선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농협중앙회가 계약재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노지채소류 유통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계약재배 사업과 비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한편, 농산물 비축사업은 비축 시기 및 시장방출 시기에 따라 시장가격이 변화되므로 비축사업 운영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1. 농산물 비축사업의 의의

□ 농산물 가격은 기상변화, 수급상황, 국내외 경제 환경 등의 요인으로 끊임없이 변동

-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이 진전되고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노지채소류 중심으로 재배면적 축소,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농산물 수급불안정 발생 시에 청과물 비축사업을 통하여 수급불안정을 해소

- 농산물 무역자유화 기조에 따라 국내산 청과물의 수매비축 사업은 축소되고 있으며 수입비축 사업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음
-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기상변화 발생 범위가 국내뿐 아니라 청과물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농산물 수매비축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급작스런 기상변화가 아시아를 포함하여 범지구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급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음

□ 정부는 농산물에 대하여 수매비축과 수입비축 제도를 운영

- 수매비축은 농수산물이 성출하기일 때 국내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매하여 산지가격 지지 및 농어가 소득증대, 소비지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 수입비축은 수급상 부족한 농산물 및 WTO 농산물 협상결과에 따라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수매기준 가격 산정 방법은 최저가격 보장, 예시가격, 시가 보전 3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과실류는 수매기의 시장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

2. 농산물 비축사업의 현황과 운영 실태

1.1. 비축사업 규모

- 정부의 농산물 비축사업은 물량 기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4,569억 원에서 2010년 6,811억 원으로 49.1% 증가
- 정부 비축사업 중 금액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두류 및 기타로 물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금액은 2007년 2,165억 원에서 2010년 2,823억 원으로 약 30.4% 증가하였음
 - 특작류 비축사업은 물량과 금액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7년 37,401톤, 1,121억 원에서 2010년 43,158톤, 1,899억 원으로 물량은 15.4% 증가하고 금액은 69.5% 증가
 - 양념류 비축사업은 2007년 31,669톤에서 2010년 25,876톤으로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007년 663억 원에서 2010년 1,063억 원으로 약 60.3% 증가
 - 수입권 공매는 2007년 619억 원에서 2010년 852억 원으로 약 37.5% 증가

표 1. 정부의 농산물 비축사업 부류별 운영 규모

단위: 톤, 백만 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386,895	456,939	360,173	518,537	391,873	580,722	394,588	681,103
양 념 류	31,669	66,320	23,632	54,005	13,400	39,923	25,876	106,332
특 작 류	37,401	112,092	36,390	146,511	42,103	174,740	43,158	189,951
밀 가 루	-	-	336	278	1,672	1,099	-	-
두류·기타	270,610	216,560	257,629	273,313	258,113	288,724	247,484	282,381
수입권공매	47,215	61,967	42,186	44,430	46,587	65,299	48,165	85,212
단체배정	-	-	-	-	29,998	10,937	29,905	17,22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1)

1.2. 수매비축 실적

- 비축사업은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비축 사업 위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매 비축은 소극적으로 실시
- 마늘은 2006년까지 소규모로 수매비축을 실시되었지만 2007, 2008, 2009년은 수매 실적이 없었음. 그러나 2010년 3,185톤, 210억 원, 2011년 3,366톤, 121억 원 규모가 수매됨
 - 땅콩은 2008년까지 소규모로 수매비축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9년부터는 수매 실적이 없음
 - 콩과 콩나물 콩은 2009년까지 수매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후 2010년부터는 수매 실적이 없음
 - 옥수수는 수매비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2010년 비축사업 규모가 37톤, 28백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11년 정부수매가 폐지됨
 - 감자는 2006년 5,000톤, 1,041백만 원의 수매 실적이 있었으나 2007년 이후 수매 실적이 없음

표 2. 비축 농산물의 연도별 수매실적

단위: 톤, 백만 원

품 목	2007		2008		2009		2010		2011	
	물량	금액 ¹⁾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4,403	13,001	3,044	8,823	1,698	4,233	3,222	21,105	3,366	12,186
마늘 ²⁾	-	-	-	-	-	-	3,185	21,077	3,366	12,186
땅콩	19	39	4	9	-	-	-	-	-	-
콩	4,341	12,903	2,705	8,037	958	2,857	-	-	-	-
콩나물콩	11	36	205	680	308	1,052	-	-	-	-
옥수수	32	23	130	97	432	324	37	28	-	-
감자	-	-	-	-	-	-	-	-	-	-

주: 1) 수매금액 = 물품비 + 수매경비, * 간마늘은 긴급가격안정사업비로 수매

2) 간마늘 포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2)

1.3 수입비축 실적

- 국영무역 수입실적은 2007년 29만 2천 톤(1억 6,369만\$)에서 2011년 39만 5천 톤(3억 6,799만\$)으로 물량이 35.6% 증가, 금액은 2배 이상으로 증가
- 국영무역 수입실적이 가장 많은 품목은 콩나물 콩을 포함한 대두로 2007년 221,295톤, 96,457천 달러에서 2011년 279,718톤, 198,066천 달러로 물량대비 26.4%, 금액대비 105.3% 증가하였음

표 3. 연도별 국영무역 수입실적

단위: 톤, 천 달러

품목	2007		2008		2009		2010		201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고추	5,576	12,932	5,685	10,613	5,655	9,102	5,585	14,857	13,092	38,401
마늘	10,467	5,631	3,374	1,230	4,100	5,993	24,339	57,277	26,467	39,160
건조마늘	750	817	2,000	1,726	-	-	-	-	-	-
양파	-	-	14,000	4,507	-	-	3,145	1,537	5,794	2,879
건조양파	1,126	1,831	-	-	709	1,970	857	2,373	129	476
생강	440	174	500	337	-	-	500	649	500	379
참깨	33,500	33,386	37,486	68,374	38,552	53,775	45,087	59,279	42,966	55,189
땅콩	907	877	907	1,284	907	793	455	741	700	1,438
대두	221,295	96,457	259,385	211,379	229,679	163,420	224,015	130,066	279,718	198,066
팥	17,500	11,582	15,198	13,937	20,350	16,454	21,000	29,883	26,000	32,000
합계	291,561	163,687	338,535	313,387	299,952	251,507	324,983	296,662	395,366	367,988

주: 환산수율: 신선마늘 → 건조; 25%, 신선양파 → 건조; 7.2%, 건조마늘 2,000톤은 신선 기준 8,000톤

대두에는 콩나물콩 포함, 팥에는 녹두 포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2)

- 2008년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의 급격한 성장과 바이오 연료 등의 대체 에너지 개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 등으로 밀, 쌀, 옥수수 등의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

- 국영무역의 연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물량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물량이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금액 증가분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2001년에는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단가는 톤당 365.0달러에서 2010년에는 912.9달러로 150.1% 상승하였음.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던 2008년 톤당 수입단가는 925.7달러로 2007년 561.4달러에서 64.9% 상승하였음

표 4. 연도별 국영무역 톤당 단가

단위: 톤, 달러

구 분	물량	금액	톤당 단가
2001	277,122	101,156,000	365.0
2002	277,845	86,056,000	309.7
2003	316,538	136,765,000	431.1
2004	346,461	191,011,000	551.3
2005	321,584	152,142,000	473.1
2006	319,581	150,272,000	470.2
2007	291,561	163,687,000	561.4
2008	338,535	313,387,000	925.7
2009	299,952	251,507,000	838.5
2010	324,983	296,662,000	912.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1)

3. 농산물 비축제도의 문제점

3.1.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기능 부족

- UR 농업 협정문에서 규범상 국내 농산물 수매는 가격지지 정책으로 분류되어 점차 감축·폐지되는 추세
- 농산물 자유 무역이 활발할수록 국내 농산물을 수매하여 비축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생산자 가격지지 정책으로 분류되어 점차적으로 감축 및 폐지되고 있음

- 특히 양념 채소류인 마늘, 고추 등 대부분의 품목은 국영무역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량 대비 비축률 수준이 마늘 3.3%, 고추 3.0%, 양파 1.5%로 비축사업의 영향력이 제한적임
 - 농업인은 정부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수매비축 사업의 확대실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UR 농업 협정문 위반, 정부 예산 확보의 한계 등으로 어려운 실정임. 그러므로 농협, 영농조합 법인 등의 생산자 단체가 정부의 수급안정 자금을 활용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이것이 비축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정부가 국내 농산물의 수매·비축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생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미흡**
- 정부가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매 및 비축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자단체가 계약재배 등을 활용하여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고 비축사업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현재 농협 등의 생산자 단체 및 민간단체가 자율적인 계약재배 등을 활용한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수매·비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협 등의 생산자 단체, 민간단체의 역할 부재로 단기적인 기상이변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3.2. 수입비축 비용의 증가

- 비축용 농산물 수입대상 국가는 중국, 미국,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으로 품목별로 소수의 국가에 한정**
-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념 채소류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국가는 한정되어 있어 비축물량의 지속적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생강)와 녹두, 팔 위주이고 대두는 미국과 브라질, 참깨는 인도, 아프리카로 한정되어 있음
- 기상변화 등으로 소수의 수입대상국가의 수급 상황이 불안정하다면 비축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마늘의 국내 수급이 불안정하여 중국에서 수입을 추진하였지만 급격한 기상변화로 중국산 마늘의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의 여파로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표 5. 중국산 신선마늘 국내 판매가격 추정(회계기준: 1~12월)

단위: 원/kg

구 분	2008		2009		2010	
	깐마늘	냉동 마늘	깐마늘	냉동 마늘	깐마늘 ¹⁾	냉동 마늘
중국산 수입가격	2,383	1,264	3,133	1,500	11,474	2,556
CIF 가격	530	922	1,212	1,226	2,116	1,695
통관 제 비용 ²⁾	1,853	342	1,921	274	9,358	861
중국산 도매가격(A) ³⁾	2,622	1,390	3,447	1,650	12,621	2,811
국내산 도매가격(B)	3,474	1,775	3,550	2,000	5,834	4,362
A/B (%)	75.5	78.3	97.1	82.5	216.3	64.4

주: 1) 2010년 수입 깐마늘의 경우 중가세(물품대×360%(관세율)×환율)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종량세(1,800원/kg)를 적용한 그 이전보다 수입가격이 높게 추정됨.

2) 수입통관 제 비용에는 관세와 수입 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3) 수입마늘 도매가격은 수입가격에 유통마진 10%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REI 농업관측센터 해외모니터 조사치.

3.3. 민간의 TRQ(저율양허관세) 취급 증대

- TRQ 물량은 국내산 농산물보다 저렴하고 관세가 낮기 때문에 식품 업체 등에서 취급을 선호하고 있지만 농업인은 TRQ 수입물량 증대를 우려하고 있음

-
- 민간업체의 수입권 공매가 증가할 경우 시장지향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수입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여 경제 효율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민간업체의 경우 수입권 공매를 신청하는 업체 간 암묵적 담합을 통하여 1차 농산물 및 2차 상품의 시장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 있음. 또한 대기업에 수입권이 독점될 우려가 있고 수입국의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민간업체가 TRQ 물량에 대한 수입을 불이행 할 수도 있음
 - 국영무역이 TRQ 물량을 취급하는 것은 비축물량의 상시 확보를 통하여 국내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장 가격이 상승하기 이전에 시중에 방출하여 국내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음
 - 그러나 민간업체의 TRQ 물량 취급이 증가할 경우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량 저하, 가격하락 등의 현상이 발생되므로 농업인은 TRQ 취급량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국내 수급사정이 기상변화 등으로 어려울 경우 민간업체는 수입물량을 비축하여 시장에 방출할 의무가 없어 국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

표 6. TRQ물량 취급에 대한 국영무역과 수입권 공매 장·단점

구 분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장 점	○ 자체적인 수급시기 조절을 통하여 민간품목에 대한 국내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가능 ○ 수입차익을 직접 정부재원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재원의 활용도 제고	○ 시장지향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수입을 촉진하고 무역의 왜곡현상을 최소화 ○ 국영무역을 실시하는 업체의 기득권 형성을 저지하고 새로운 수입업자가 자유로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단 점	○ 투명성 부족, 시장조건 미고려 등 행정편의주의 심화 우려 ○ 수입 이행율이 저조한 경우 수출국들의 반발	○ 수입업자 담합과 수입업자의 판매가격, 소비자가격 인상 우려 ○ 대기업의 수입권 독점우려와 수입국 국내 상황에 따라 수입 불이행 우려
수입·판매주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불특정 다수 민간기업 등
사업참여목적	○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 및 가격안정	○ 이윤 추구
수입시기	○ 상시비축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국내 수급상황 등을 종합 감안 결정	○ 국내 가격 상승시
판매시기	○ 국내 시장가격이 상승하기 이전	○ 국내 시장가격이 최대로 상승한 시점
수급 및 가격 안정	○ 민간업체의 시장독점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여 안정적 수급 및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음	○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수급혼란 조장 및 가격왜곡 가능성 존재
유통질서	○ 원산지 표시를 강화시킬 수 있어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수입업체의 난립으로 원산지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수익증식	○ 국고수익의 안정적 증식 기대	○ 입찰업체의 담합을 통하여 의도적 저가 응찰로 국고 수입 안정적 증식을 저해
통상마찰	○ 수입이행을 제고로 통상마찰 우려 없음	○ 수입여건 악화시 수입이행 포기로 이행을 저조 우려
긴급대응력	○ 비축기능 보유로 식량파동 등 비상시 신속 대응 가능	○ 민간의 비상사태 해소의무가 없어 긴급 대응 불가능함

4. 농산물 비축사업의 개선 방안

4.1. 수매비축 사업의 개선

(1)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비축사업 체계 확립

□ 정부의 수매비축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자 단체가 계약재배 확대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생산자 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수매비축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 없이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인 중심의 전근대적인 거래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정부가 수매비축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경우 UR 협정문 상에서 직접 보조로 규정하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어 계약재배 비율이 증가하는 시점에 자율적인 수매비축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계약재배 사업과 비축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농협 중앙회 사업참여 확대, 산지유통인 법인화를 통한 수급안정 사업 참여 등이 필요

○ 현재 청과물 분야에서 농협의 계약재배 비율은 약 30~40%에 불과하고 노지채소류 분야에서는 20%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이 협력하여 계약재배 사업과 비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일선 조합이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수확기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 계약재배 자금 부족, 전문성 부족 등 현실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계
- 그러므로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이 계약재배와 관련된 자금, 업무 등

의 분야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계약재배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일정부분 APC, 물류센터에 비축하여 청과물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산지유통인은 노지채소류 분야에서 일종의 선도거래 형태인 발매기 거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수급안정 사업 주체로 육성하여야 함
 - 수급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법인화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약재배 활성화를 도모하고 APC, 물류센터 등을 지원하여 비축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2) 노지채소류 중심의 수매 비축사업 실시

- 노지채소의 주요 품목인 배추, 고추, 마늘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의 주원료이지만 최근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변화에 따른 수급 및 가격 불안정 현상이 커지고 있음
 - 노지채소류는 시설채소와 달리 노지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기상변화에 따라서 생산량 변화가 커 가격변동이 큰 특성이 있음
 - 농산물 수매 비축사업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의 주원료가 되는 노지채소류(배추, 고추, 마늘) 위주로 실시하여야 비축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배추, 고추, 마늘 수매 비축사업의 실시 규모는 통상적으로 도매시장에서 가격상승이 기준이 되는 30%를 기준으로 가정할 때 수매 비축사업에 소요되는 물량 및 비용은 다음과 같음
 - 봄배추는 시장가격이 30% 증가하였을 때 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물량이 약 125.3천 톤 이고 1개월 저장을 가정할 경우 약 480억 원, 고랭지배추는 13.9천 톤, 약 50억 원, 가을배추 165.5천 톤, 약 630억 원으로 총 1,1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
 - 고추와 마늘은 시장가격이 30% 증가하였을 때 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물량이 1개월 저장 기준으로 각각 20.7천 톤, 260억 원과 28.6천 톤, 510억 원이 필요

4.2. 수입비축 사업의 개선

(1) TRQ 물량의 수입방식 다양화

- 수입비축이 국영무역 위주로 관리될 경우 민간에서 식품관련 제조업체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므로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팔은 가공식품에 활용되는 범위가 넓고 고추, 마늘, 참깨, 콩, 팔은 국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민간에서 수입을 통하여 가공식품에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품목임
 - 해당 품목의 수입관리를 국영무역을 통하여 실시하게 될 경우 민간의 식품가공업체는 원물확보의 한계 때문에 관련 시설의 증축, 영업확장 등에 한계가 있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팔의 수입관리 방식을 국영무역 위주에서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정부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정부에서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의 수입방식을 국영무역,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으로 다양화할 경우 수입 농산물의 품질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수입비축을 실시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최저가 낙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 품질에 대한 민간업체의 불만이 높았음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의 수입방식을 국영무역, 수입권 공매, 단체배정으로 다양화할 경우 민간이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2) 시장방출 방식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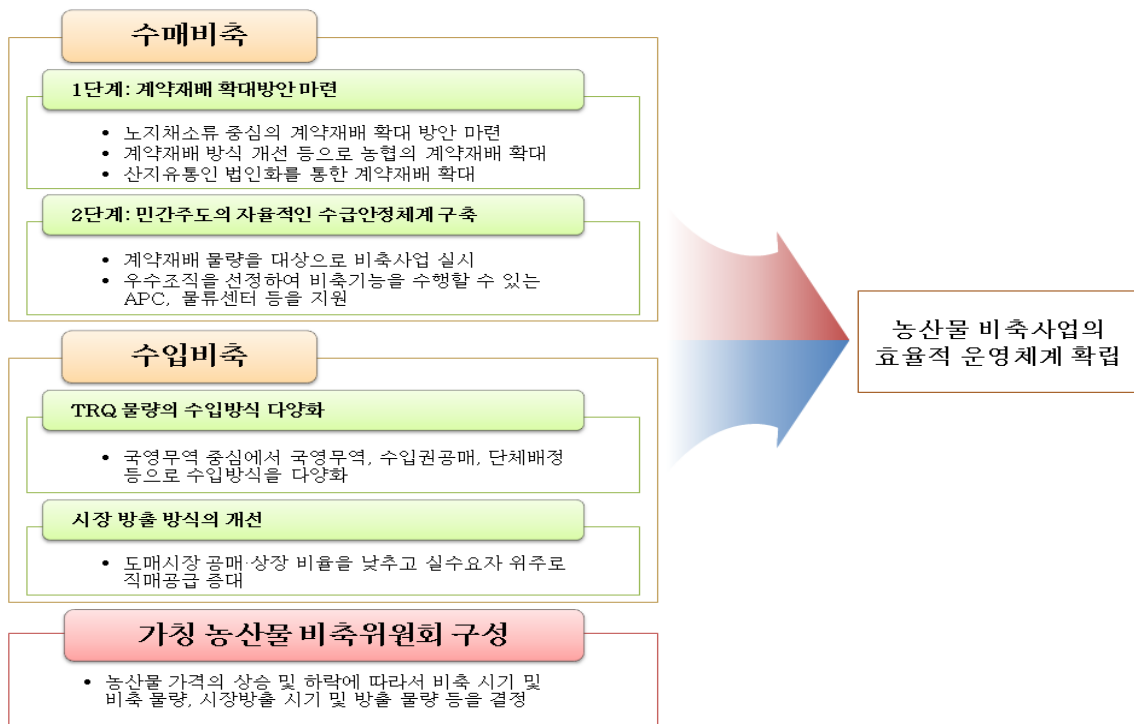
- 양념채소류는 도매시장에 공매·상장 비율을 낮추고 직배공급 비율을 증가시켜야 함
 - 양념채소류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수입비축 물량이 도매시장에 공매·상장 방식으로 유통될 경우 소비지에 즉시 공급되어 물가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함
 - 양념채소류가 유통과정에서 국내산과 혼합 또는 원산지 표기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3kg, 5kg, 10kg 등의 소포장 단위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이버 거래소, 대형유통업체 등의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도매시장에 방출된 물량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지 않고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입비축 물량을 취급하는 도매시장 상인, 소비자 유통업체, 최종 판매처 등이 일정기간 내에 거래물량, 거래내역 및 단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4.3. 비축사업 운영체계의 전문성 확보

- 농산물 비축은 비축 시점과 시장방출 시기, 비축 및 방출 물량 등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농산물 비축사업 운영체계 전문성이 필요
 - 현재 농산물 비축 및 시장방출 시기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지만 비축 및 시장방출 시기조절이 실패하였을 경우 시장 가격의 상승 및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농산물 비축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 계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칭 “농산물 비축 위원회”)를 구성

- 가칭 “농산물 비축 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자, 정부, 농산물 관측사업 품목 담당자, 유통업자(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담당자 등), 수출 및 수입업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하여 비축사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함
- 비축위원회에서는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수매 및 수입비축의 규모를 조절하고 비축시기와 비축물량, 시장 방출시기와 방출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함

그림 1. 농산물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2년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송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물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9. 28

발 행 2012. 10. 5

발 행 인 이동필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355-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